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반응들

(마 26:1-16)

마태복음 21장~2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하셔서 3일 동안 보여주신 행적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금요일까지 하루 반 정도가 남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 할 때가 너무도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런 엄숙하고 숭고한 때에 예수님을 향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민사법으로나 형사법으로나 종교법으로나 걸릴 것이 없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로 합니다.

2. 추하기 그지없는 배신자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많은 기대를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물욕이 강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야망을 채울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했습니다(요 12:6). 이런 틈을 마귀가 파고들어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긴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행 1:18-19).

3. 예수님의 죽음을 사랑의 헌신으로 준비한 베다니 마리아

마리아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 한 옥합의 값은 300 데나리온으로 가난한 마리아에게는 가지고 있는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이런 헌신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온전한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마리아를 바라보며 가롯 유다는 "이것을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가?" 라며 책망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헌신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으시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13절)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개인적인 야망과 물욕에 가득 차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께 헌신한 마리아의 상반된 모습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Diverse Reactions Toward Jesus Christ

(Matt. 26:1-16)

The contents of Matthew 21-25 are about Jesus' deeds that He showed for three days after He entered Jerusalem. In the text, it was the time when Jesus had about a day and half hours until Friday before He would be nailed on the cross. It was much nearer that He would suffer much severely from the cross.

In such a solemn and noble time, there were three different people who showed diverse reactions toward Jesus.

1. The religious leaders who plot to murder Jesus

Jesus was the existence like a thorn in the side for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Even though they, by any means, wanted to murder Him, they did not have any legal basis. Since Jesus was not contrary to any criminal law, any civil law, or even religious law, finally they would like to murder Jesus Christ with blasphemy against God.

2. Judas Iscariot, the betrayer who is completely ugly even

Judah Iscariot was a disciple who was loved by Jesus and was expected very much. But because of Judah who was strongly materialistic, Jesus knew that he was not the passage that could be filled with Jesus desires, and Jesus himself was disappointed very much at him (John 12:6). Through such a change, in his mind that the Satan enter, Judah intended to sell Jesus and hand over to be crucified to Jew, Judah who sold and handed over Jesus to Jew died a miserable death (Acts 1:18-19).

3. Maria in Bethany who prepared Jesus' death as a devotion of love

Before Jesus would die on the cross,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valued 300 denarius which Mary poured on Jesus head might have been all of her possession for the poor Maria. Like this, Maria's devotion is because of the love for Jesus. Love makes people devote perfectly. By looking at this Maria, Iscariot Judah blamed her, "If the perfume could be sold at the price of 300 denarius and given to the poor, how

good is it? Why this was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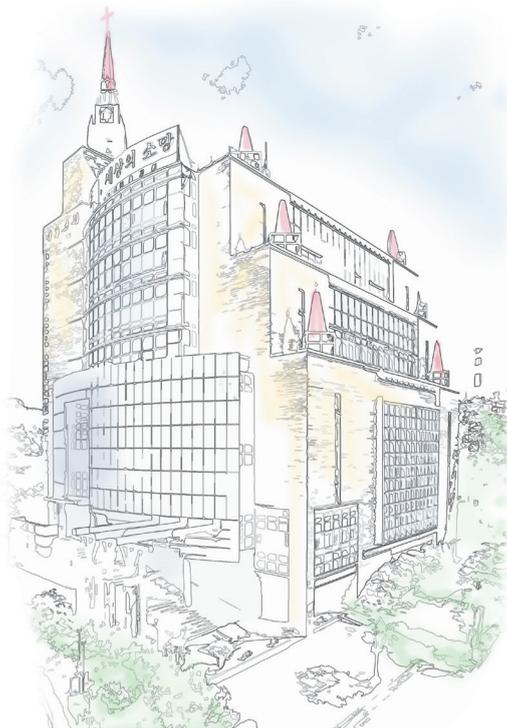
Jesus was moved and comforted by such a devotion of Maria, and blessed them,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this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v. 13).

My beloved Christians,

In the text, there appears contrary situation to each other: one is Iscariot Judah who betrayed Jesus because of individual desire and materialism, and the other one is Maria who gave her most precious thing and devoted herself to Jesus.

Toward Jesus Christ who died for me, gives us the greatest grace and blessings until now, and leads us to the eternal kingdom of God and blessed heaven and new soil, by dedicating and living our lives like Maria,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God's preciou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5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청년부 : 7월 13일(월)~16일(목) / 강원도 고성
 영어예배부 : 7월 17일(금)~18일(토) / 아가페타운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4(금) - 25(토)	서울교회	예수님을 만나러 레디~ 고! (요 3 : 16)	박노철 목사 구분혜 전도사
유치부	7/24(금) - 25(토)	서울교회	와! 예수님이다 (요 3 : 16)	박노철 목사 양세라 목사
유년부	7/24(금) - 25(토)	서울교회	어메이징 그레이스 (롬 3 : 23-24)	박노철 목사 고수는 전도사
초등부	7/24(금) - 25(토)	아가페타운	믿음으로 승리해요 (요일 5 : 4)	박노철 목사 심진희 목사
중등부	7/23(목) - 25(토)	아가페타운	Who am I ? (사 43 : 1)	박노철 목사 이진광 전도사
고등부	7/30(목) - 8/1(토)	아가페타운	주님을 바라며 뜻을 정하다 (단 1 : 8)	박노철 목사 천세중 목사
청년1부	7/13(월) - 16(목)	강원도 고성 경기도 광주	섬기는 기쁨, 누리는 은혜 (행 9 : 31)	박노철 목사 서준권 목사 장재원 전도사 정대는 전도사
청년2부	7/28(화) - 31(금)			
에바다부	7/30(목) - 8/1(토)	아가페타운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 : 3-12)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영어예배부	7/17(금) - 18(토)	아가페타운	International in Christ	김다니엘 목사

2015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 7월 15일(수) / 수여식 : 8월 2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5년 하반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이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을 7월 15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5년부터는 제출서류에 -재정상태확인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선발토록 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락방 리더훈련 종강

상반기 다락방 리더훈련이 7월 15일(수) 종강한다. 혹서기를 맞아 다락방 모임도 방학한다.

개강은 8월 26일(수)이며, 이에 앞서 8월 21일(금) 리더수련회로 모인다.

직분자 양성반 수료자 명단

이화영, 홍영배, 박찬수 오혜령, 김학중, 오현숙 홍정화1 박은경 서병권, 조은정, 서병구 김민성, 전해진, 송현수 박효진, 김옥남, 김상복 고은주, 김성혜, 남궁규, 오민조, 원유현, 이소희, 이종관, 이창우, 전성희,

최미애, 최은희, 한소영, 이지영 박창현, 이철현, 조임선, 최경호, 황미란, 김선미, 정성우 박권선, 양현주, 차찬란, 박병연, 김성호 김선정, 박인희, 이선희, 이기욱, 김성규
 이상 47명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76)

(문 176) 스테반이 산헤드린에서 설교할 때 야곱이 묻힌 세계의 무덤을 아브라함이 하물의 자손으로부터 산 것이라 했는데(행7:16) 이는 야곱이 하물의 자손들로부터 산 것이라 한 여호수아 24:32과 다른 것입니까. 스테반이 구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인가요?

(답) 두 기사가 서로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기사는 모두 사실과 다르지 않은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샀던 것을 야곱이 자기 가족을 위해 다시 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의 우물의 경우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 우물은 본래 아브라함의 종들이 샀습니다. 그러나 그랄왕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일곱 암 양을 제공하므로 그 재산을 다시 확보하였습니다. (창 21:27-30) 유목민적인 풍습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그가 법적으로 가졌던 재산을 무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그 우물은 그것이 위치했던 그 지역의 주민의 소유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창26:28-31에 의하면 이삭이 아비멜렉(아마도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아비멜렉의 아들이나 아니면 손자)과 다시 계약을 맺고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동일한 땅을 두 번 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첫 번째 머문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창12:6-7).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곳입니다.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아브라함이 매입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스테반은 믿을만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의 얘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간 훨씬 후 이삭은 브엘세바를 자기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야곱이 빛단아람에서 21년을 지낸 후 아브라함이 그 땅의 소유자라는 것은 세겜 거민들에게는 생소한 얘기처럼 잊혀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재산권은 오랜 세월 사용되지 않으므로 몰수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지 오래됨으로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나타나 디나의 강간사건으로 학살사건이 있기까지 그 곳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테반의 설교는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장년부 빌립보서 강의 개강

김철홍 목사의 빌립보서 강의가 7월 19일(주) 1부 예배 후 본당 2층에서 개강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한교단다체제와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모퉁잇돌 장로교회 되라

(골1:12-14, 미6:6-8, 히7:1-2)

제 7회 장로교의 날 집회가 지난 7월 10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장로교총연합회는 장로교가 하나가 되기 위한 4대 비전을 선언하고 비전실천 7대 운동을 제시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임과 동시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순교의 피를 뿌린지 150년, 미국의 언더우드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 조선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지 130년이 되는 해이다. 순교자의 피와 성도들의 밤낮 없는 기도로 태어난 한국교회가 어둠을 헤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장로교회가 하나 되는 화합의 빛을 찾아 나섰다. 다음은 이날 이종운 원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부)

진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를 이루실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본질적인 것은 연합과 일치,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하라,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때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히 드리자.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자.

예수님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하셨다. 그가 언급한 진리는 예수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마6:1).

너그럽게 주지 않는 것은 찌르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불의이다. 욥기31:16에서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한 것을 죄라 했다. 정의롭게 사는 것 중 하나는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겔18:5-8, 신58:6-7)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너그럽게 드러 부정, 폭력, 억압, 분열을 종식시키고 장로교의 한 교단

한반도의 통일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자유, 정의, 평화에 입각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원이고, 성경에 근거한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I. 자유란 무엇인가?

선지자 이사야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사61:1)고 말씀한다. 누가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라 증거했다(눅4:18-19).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죄와 사단에게 종된 자들을 해방시켜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선포하셨다(요 8:34-36, 41-44).

장로교의 날 주제성구인 골로새서1:13말씀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셨다”고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 속의 뼈들까지 흔드신다면 어둠의 권세는 죄인 된 우리 마음을 흔드는 도덕적 어둠이다. 전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 저주아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은혜로 죄의 영역에서 거룩하고 평화의 나라에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다. 누가 75년 묵은 죄의 고목 같은 나를 교만의 가지를 자르고 옥도로 옮겨 심어 줄 수 있을까? 누가 250개 이상의 교단으로 찢겨진 한국장로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누가 남과북, 동과서로 갈라

나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를 이루실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본질적인 것은 연합과 일치,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하라,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때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히 드리자.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자. 예수님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하셨다. 그가 언급한 진리는 예수

II. 정의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가복음4:18이하에서 이사야61:1을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한다. 예수님은 은혜, 용서를 가져오신 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정의를 실천하시려고 오신 분으로 고백해야 한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천 천의 수양이나 만 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만아들을 제물로 원하시기보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했다(미가6:6-8). 인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동정을, 정의는 그 인자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정의 실천의 동기가 인자라는 것이다.

1. 정의실천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2. 정의실천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
3. 정의는 하나님과 사회적 관계가 바르게 나타나야 한다.

다체제를 이루어 복음화 된 통일조국 건설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자.

III. 평화란 무엇인가?

살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말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메시아의 모형이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면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히7:2)했다. 의가 없는 평강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의로 화평케 하셨다.(롬5:10, 엡2:16)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다. 장로교회는 교리에는 고혈압증환자에, 행위에는 빈혈증환자가 되지 말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 약한자를 끌어주고 잘못 된 일을 바로 잡아주자. 이렇게 평화를 이룰 때 장로교회가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모퉁잇돌이 될 것이다.

맺는 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칠천명으로 상징된 남·북한 기독교인들은 조국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스라엘 역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듯이 우리 민족의 역사의 주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민족의 복음화는 신앙의 하나됨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바알종교인 공산주의와 황금만능의 세속주의를 배척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성경적 교회로 자처하는 한국장로교회가 먼저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세워야 한다.(시33:12) 이것은 기독교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나라를 말한다.

자유, 정의, 평화가 입 맞추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모퉁잇돌은 건물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기둥 밑에 깔려서도 원망과 시비없이 자기 사명을 묵묵히 감당 한다. 뿐만 아니라 연결고리가 되어 동·서, 남·북을 이어준다.

한국장로교회는 복음화 된 통일조국의 모퉁잇돌이 되어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예수님이 머리되시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한다.

정리 : 허 숙 권사(편집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김권식 성도
(1교구)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는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앙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진 상태로 천국 문턱에 묶여진 강아지처럼 세상의 나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예배를 의무감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성찬식 때마다 가끔 드렸던 주일예배를 점점 횡수를 늘려 주일예배로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박노철 목사님의 설교는 가벼운 주제가 아님에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로 하여금 탄식을 하게 했습니다. 박목사님의 설교는 저를 감동시켰고 하나님께 말

은 회개를 하므로, 무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듯 많은 징계, 경계의 말씀들이 제 머리에 떠올랐는데, 지면상 다 열거할 수가 없으나,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흑시라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을 다 포기해도, 천국은 꼭 가야겠다는 소망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고 해서 새벽기도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박목사님을 비롯한 서울교회의 부목사님들의 철저한 준비가 묻어나는 설교는 혼자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

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아 은혜스럽게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들에게 감사는 커녕 인사조차도 할 수가 없으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게 되었고, 새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서울교회의 누구하고도 마음 편히 인사를 나눌 수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흑시 저처럼 교회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계시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삼위 일체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대장: 최형열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백경화 권사의 지휘로 스테반의 순교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테마로 하는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Felix Mendelssohn곡)”중 ‘시련 견디자는 복되도다’, ‘일어나 주의 빛 비추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어’ 등을 찬양한다. 오르가니스트 차주연 집사, 피아니스트 임아름 선생,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하고 아멘관현악단(대장: 김혜연 집사, 지휘: 임범창집사)이 협연하며 박영준 목사가 나레이션을 담당한다.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2일(주) 동대천교회 이규정목사 위임 예식 설교를 한다.
- 공연: 15교구 신오란 집사, 2015 벨칸도 오페라단 정기 연주회, 영산아트홀, 7월13일(월) 오후 7시30분
- 주일식당봉사 : 모세 선교회(7.12) 이삭 선교회(7.19)
- 금주의 식사 제공 : 임흥수 집사 하옥봉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전도수련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이 널리 증거 되도록
2. 인도 비전트립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3. 후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될 다음세대들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 받아



정성우 성도
(청년2부 회장)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군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과 같이, 청년부에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는 기쁨, 누리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는 1, 2차로 나뉘어, 1차는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를, 2차는 작년과 동일하게 경기도 광주 일대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섬기게 된 강원도 고성지역은 어촌마을로서 아직은 복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아 의료봉사, 이.미용봉사를 시작으로 축호전도, 어린이 학교 사역 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고 있

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올해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게 조력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 부족한 모습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남은 시간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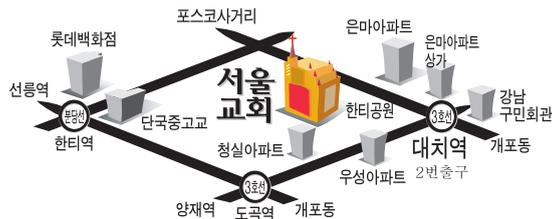
끝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주시고 많은 후원을 베풀어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너무도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성도님들께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